중소벤처기업부 | 보도자료 | 대체불가 대한민국

보도시점 2026. 10. 29.(목) 석간 < 2026. 10. 29.(목) 06:00 >

로컬창업 소상공인 투자유치 1,227억원 달성

- `23년 이후 LIPS를 통해 로컬창업 소상공인 765개사에 1,227억원의 민간투자 유치, 10개사는 중기업으로 성장
- 민간투자가 제조업 등 로컬기업의 성장을 뒷받침하고, 화장품, 식·음료(F&B) 등 K-소비재의 수출까지 이어지며 성장 기반 다변화

중소벤처기업부(장관 이소영, 이하 중기부)는 10월 29일(목) **「로컬창업 소상공인 대상 민간투자 동향 및 분석 결과」**를 발표했다.

립스*는 중기부가 지정한 **운영사**(민간투자사)가 지역의 고유한 자원, 문화, 특성을 가진 로컬창업 소상공인에게 **먼저 투자**하면, 중기부가 **정책자금** 및 **사업화 자금**을 **매칭 지원**하는 프로그램이다. 이번 분석에서는 `23년 사업 도입 이후 실적을 바탕으로 **로컬창업 소상공인**에 대한 **투자 흐름**과 **성장 성과**를 살펴봤다.

* LIPS(Local & Lifestyle biz Incubator Program for Strong SME) : 민간 투자사로부터 소상공인이 투자 유치 시, 투자금의 최대 5배 융자(5억원 이내)·3배 사업화 자금(2억원 이내) 지원

1 로컬창업 투자 동향

※ '23.~'26.8월 수혜기업 대상 분석(765개사)

`23년 이후 립스를 통해 로컬창업 소상공인 **765개사**에 **1,227억원**의 **민간투자**가 이뤄졌다. **기업당 평균 투자액**(누적, `23.~)도 `23년 1.17억원에서 **`26년 1.6억원으로 증가**했고, **최초 투자액**이 **1억원 이상**인 기업의 비중도 43.0%에서 57.9%로 **높아졌다.** 로컬창업 소상공인에 대한 **민간투자**가 전체 규모와 투자 금액 모두 **확대**되는 흐름을 보였다.

<로컬창업 투자 현황(`23~`26.8)**>**

(단위 : 개사, 억원)

구분	2023	2024	2025	2026(~8月)	합계
기업 수	128	120	353	164	**765**
투자규모	150.7	179.5	560.1	336.7	**1,227**
기업 평균 투자액누계	1.17	1.33	1.48	1.60	**1.60**

투자 대상은 업력 3~7년 사이의 **중기 기업**(375개사, 49.0%)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, **평균 업력**도 **3.6년**이었다. 지원 전후 매출과 고용은 모든 업력 구간에서 증가했으며, 특히 초기 기업의 매출(+188%)과 고용(+100%)이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. **민간투자**와 **정책지원**의 연계가 **초·중기 기업**의 성장에 **긍정적인 효과**를 미치는 것으로 판단된다.

<로컬창업 업력별 투자 비교(`23~`26.8)**>**

(단위 : 개사, 억원)

업력		기업 수	비중	매출 변화			고용 변화		
				지원 전	지원 후	성장률	지원 전	지원 후	성장률
초기	(3년 이내)	292	38.2%	2.02	5.82	188.1%	1.49	2.98	100.0%
중기	(3~7년)	375	49.0%	7.43	10.75	44.7%	4.24	5.19	22.4%
후기	(7년 초과)	98	12.8%	12.22	13.88	13.6%	5.89	7.12	20.9%

※ 매출·고용 분석은 지원 전·후 이력이 있는 519개사 대상으로 진행

업종별로는 **제조업**(321개사, 42%), **서비스업**(131개사, 17%), **정보통신업**(126개사, 16%), **도소매업**(125개사, 16%) 순이었다. 그간 벤처투자*가 기술 분야 중심으로 이뤄진 가운데, **로컬창업 소상공인 투자**는 식품·뷰티 등 소비재 제조부터 가사·건강관리 분야의 생활서비스, 교육·인력 매칭 플랫폼까지 **다양한 생활 기반 사업**으로 **확산**되는 것으로 나타났다.

* 2026년 상반기 벤처투자 상위업종 : ICT 서비스, 전기·기계·장비, 바이오·의료 순

<업종별 투자 추이(`23~`26.8)**>**

구분	2023	2024	2025	2026	전 기간
1순위	제조업(48%)	제조업(43%)	제조업(37%)	제조업(47%)	제조업(42%)
2순위	도소매업(16%)	서비스업(18%)	서비스업(21%)	정보통신업(24%)	서비스업(17%)
3순위	서비스업(12%)	정보통신업(15%)	도소매업(20%)	도소매업(13%)	정보통신업(16%)

대표자 연령은 **청년 대표**(20·30대)의 비중이 전체 수혜기업의 **42.9%**를 차지해, **소상공인**(7.7%, 2024년 소상공인 실태조사) 대비 **5.6배**에 달했다. 청년 대표 기업이 투자받은 로컬창업 소상공인에서 큰 비중을 차지해, 청년이 민간투자를 발판으로 성장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.

* 청년 대표 비중 : `23년 44.9% → `24년 34.2% → `25년 44.6% → `26년 46.6%

2 성과로 이어지는 로컬창업 투자

※ (분석대상) 매출·고용 자료가 있는 519개사(`23~`25)

<기업규모>

2026년 8월까지 투자받은 로컬창업 소상공인 765개사 중 **10개사**가 **중기업**으로 성장했고, **51개사**는 총 **392억원 규모**의 **후속 투자***를 유치했다. 3년간 매출 성장률이 20% 이상인 **고성장 기업**의 비중도 **70.7%**로 나타났다. **민간투자**를 시작으로 매출을 키우고 후속투자를 유치하며 **중기업**까지 **성장**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.

* 연도별 추이(억원) : '23년 7.43 → '24년 57 → '25년 213.76 → '26.8 391.97

중기업으로 성장한 **10개사**는 **F&B** 4개사, **뷰티** 2개사, **라이프스타일** 4개사였다. 대표 업체로는 ▲ 투자를 통해 중국·일본 등 아시아부터 북미까지 약 40개국의 해외 판로를 개척한 뷰티 기업 '파워플레이어'(`23년 선정) ▲ 디카페인 원두 스틱·드립백 등 고품질 제품을 개발해 대형 커피 프랜차이즈에 독점 납품한 '빈스페이스(`25년 선정)' ▲ '흑염소 몸국', 엑기스 제품 등 차별화된 신제품을 개발해 3년 연속 매출 증가와 2호점 개점에 성공한 '안다미로 늘봄'('23년 선정)이 있다.

<매출·고용>

민간투자를 유치한 로컬창업 소상공인의 **기업당 매출 평균**은 7.65억원에서 10.94억원으로 43% 증가했고, **평균 고용 인원**도 4.0명에서 지원 후 평균 5.3명으로 31% **증가**했다. 이들 기업의 **전체 고용**도 **646명** 증가해, 민간 투자의 성과가 매출 확대를 넘어 **일자리 창출**로도 이어졌다.

<수혜기업 성장 추이(`23~`25)>

(단위 : 억원, 명)

구분		지원 전	지원 후	증감	증가율
매출	전체	3,973	5,680	+1,707	43.0%
	평균	7.7	10.9	+3.2	43.0%
고용	전체	2,083	2,729	+646	31.0%
	평균	4.0	5.3	+1.3	31.0%

3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끄는 로컬창업 투자

※ (분석대상) 비수도권 소재 298개사(`23~`26.8)

비수도권 로컬창업에 대한 **민간투자**도 활발히 이뤄졌다. `26년 8월까지 비수도권 298개사(전체의 38.9%)가 **582.7억원 규모**의 민간투자를 유치해 **전체 투자액의 47.5%**를 차지하여, 로컬창업 **투자**가 **지역**으로 **민간자본**을 **유입**시키는 역할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.

업종별로 민간투자를 받은 비수도권 로컬창업 소상공인을 살펴보면 **제조업 148개사**(49.7%), 서비스업 46개사(15.4%), 도매·소매업 41개사(13.8%) 순이었다. 제조업 비중이 수도권(37%)보다 높아, **지역 제조 기반 소상공인**의 성장 가능성에 대한 민간의 관심이 투자로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.

<지역별 상위 3개 업종(`23~`26.8)>

(단위 : 개사)

구분	수도권			비수도권		
	업종	기업 수	비중	업종	기업 수	비중
1순위	제조업	173	37%	제조업	148	49.7%
2순위	정보통신업	90	19.3%	서비스업	46	15.4%
3순위	서비스업	85	18.2%	도매·소매업	41	13.8%

4 K-소비재와 함께 성장하는 수출

※ (분석대상) 수출 실적이 있는 113개사(`23~`25)

민간투자를 유치한 로컬창업 소상공인의 **해외시장 진출**도 **확대**됐다. **수출 참여율**(`23. 12.0% → `25. 22.7%)과 **기업당 평균 수출액**(`23. 1.83억원 → `25. 2.33억원) 모두 **증가세**가 이어졌다.

주요 수출 품목은 화장품, 패션 등 **K-소비재**가 두드러졌다. **수출액 기준**으로 **화장품**(117억원, 45.1%), **의류**(29억원, 11.1%)순이었으며, **수출기업 수 기준**으로는 **화장품**(22개사, 20.1%), **식품**(12개사, 11.2%) 순으로 많았다.

주요 수출 대상국은 **미국**(49개사, 43.2%), **일본**(40개사, 35.4%), **중국**(37개사, 32.7%)순으로 나타났고, 동시에 수출 대상 국가·지역 수(`23. 32곳 → `25. 57곳)는 증가하여 유럽·중동 등 **해외 판로**가 **다변화**되는 흐름을 보였다.

한편, 중기부는 11월 4일부터 6일까지 제주에서 여는 「**제1회 로컬창업 페스타 in 제주***」와 연계해 '2026년 립스 성과공유회'를 개최할 예정이다. 이번 행사에서는 로컬창업 투자 성과, 분석 결과 및 우수 성장 사례를 공유하고, 올해의 립스 운영사 및 소상공인을 시상한다.

* 지역 특색을 살려 성장한 우수 로컬기업의 성과를 국민과 현장에 공유하는 행사로, 제주 쉐라톤 호텔과 LPP(Local Player Platform)에서 개최(https://festa.jejucreator.kr)

김정주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관은 "K-소비재에 대한 글로벌 수요가 커지는 가운데 **로컬창업**이 뚜렷한 성장세를 보이며 **매력적인 투자 대상**으로 부각되고 있다"며, "중기부는 앞으로도 **유망한 로컬 소상공인**에게 민간투자 기회를 넓혀 성장을 뒷받침하고, **지역경제에 활력**을 더하겠다"고 밝혔다.

담당 부서	중소기업정책실 소상공인성장촉진과	책임자	과 장	유제환 (044-204-7290)
		담당자	사무관	양승헌 (044-204-7245)
			주무관	정부길 (044-204-7285)

참고 1 LIPS 수혜기업 우수사례

□ ㈜파워플레이어

우수사례 ① : 주식회사 파워플레이어		
	대표자	김유재
	소재지	서울특별시 구로구
	기업개요	스킨 케어 브랜드 **'온그리디언츠'** 운영
	지원사업	립스 I (2023년)
	지원내용	민간투자와 매칭하여 융자지원
	실적 및 성과	**"판로 개척 집중 투자로 40개국 대상 $444만 판매"** ■ 3년 연속 매출 급속 성장으로 중기업 진입 * ('23) 40.8억원 → ('24) 75.3억원 → ('25) 260.8억원 ■ 립스 참여 후, 후속투자 20억원 유치(CJ ENM) ■ 스킨케어 제품 외 색조 등 사업 확장 추진

□ 주식회사 빈스페이스

우수사례 ② : 주식회사 빈스페이스		
	대표자	조민기
	소재지	경기도 파주시
	기업개요	**디카페인** 생두 수입·유통·가공 업체
	지원사업	립스II(2025년)
	지원내용	민간투자와 매칭하여 사업화자금 지원
	실적 및 성과	**"제품 고도화 투자로 대형 프랜차이즈 카페 독점 납품"** ■ 전년대비 매출 154% 성장 및 고용 142.9% 증가 * 매출 : ('24) 126억원 → ('25) 315억원 ■ 가향 디카페인 원두 스틱 2종 개발·출시

□ 안다미로 늘봄

우수사례 ③ : 안다미로 늘봄		
	대표자	박재현
	소재지	제주시
	기업개요	흑염소 전문점
	지원사업	립스 I (2023년)
	지원내용	민간투자와 매칭하여 융자지원
	실적 및 성과	**"사업 확장에 집중 투자로 2호점 개점 성공"** ■ 3년 연속 매출 성장으로 중기업 진입 * ('23) 20억원 → ('24) 25억원 → ('25) 29억원 ■ 신메뉴 개발로 국내 유일의 '흑염소 몸국' 개발 ■ 흑염소 엑기스 제품화로 사업 지속 확장